

69(2)

구 분	보도자료	자료배포일	3월 21일	매수	총 2 매
		보도일시	3월 22(수)/조간		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정보팀	팀 장	전 은 속 (019-251-2176)	☎	380-1366
		사무관	이 윤 동 (010-6284-7523)		

식약청 위해물질 중심의 사전예측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
- 식품의약품안전청(이하 식약청)은 위해물질단 신설(1월 24일)을 계기로 기존의 적발·단속위주의 사후안전관리 체계에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예방적,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이에 따라 사전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식약청은 상반기에 고춧가루, 땅콩의 곰팡이독소(Aflatoxin B₁) 오염 여부 등 그 동안 국내·외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바 있는 위해물질에 대한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금번 조사는 6개 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, 우선 총 23종의 식품에 대하여 항생물질,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오염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.
- 금번 선행조사는 국내·외 다양하고 광범위한 식품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·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, 기준·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물질과 외국에서 부적합 처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이다.

○ 한편, 식약청은 금년 상반기까지 동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,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사를 확대하거나 기준·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필요시 기준·규격을 설정하며,

- 오염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거쳐 회수·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식약청은 지난해에도 금번과 같은 선행조사를 통하여 장어의 말라카이트그린 검사 강화, 맥주의 포름알데히드 잠정기준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.

○ 유해물질관리단 최성락(崔成洛)단장은 "선행조사로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사전탐지와 신속한 사전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"며, 앞으로도 선행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·확대 실시하여 국민들이 식품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